

마통·주담대 등 금리 줄줄이 인상... '대출절벽'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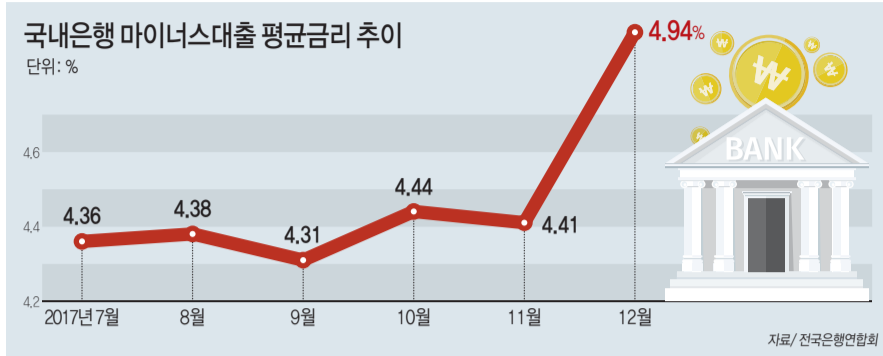
(마이너스통장·주택담보대출)

'생계 대출' 마통 금리 5%대 DSR도입시 추가대출 어려워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뛰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가운데 마이너스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지난달 마이너스통장 평균 대출금리는 4.94%로 전월(4.41%) 대비 0.53%포인트 올랐다.

최근 6개월간 국내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월별 등락 폭이 0.02%~0.13%포인트에 그쳤으나,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1.25%→1.50%)하면서 한 달 만에 큰 폭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행에서 크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부산은행의 마이너스대출 평균 금리는 4.51%로 전월 대비 0.40%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은행도 4.5%로 전월보다 0.22%포인트, DGB대구은행도 5.37%로 0.20%포인트 올랐다. 국민·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만 봤을 때도 마이너스대출 금리는 11월 3.96%에서 12월

4.07%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3.25%에서 매월 3.32%, 3.52%, 3.75%, 3.94%로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가 올랐다. 케이뱅크는 10월 5.07%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가 12월 4.09%까지 내린 상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가운데, '생계 대출'로 불리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도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후 코픽스가 넉 달째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5%에 육박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02%포인트,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04%포인트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올랐다. 여기에 마이너스통장 평균 대출금리가 6%를 넘보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더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마이너스대출 평균 금리는 5.85%, 광주은행은 5.77%로 6%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여기에 올해 대출 상환 능력 심사 지표

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 서민들의 추가 대출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기존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결국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 부담액 및 대출 잔액이 클수록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엔 저금리 기조가 있어서 서민들이 주거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늘리곤 했다"면서도 "하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고 DSR이 도입되면 추가 대출이 힘든 '대출 절벽'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어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하나금융, 김정태 등 차기 회장후보 확정

회추위, 7명 개별 인터뷰 진행 최범수·김한조 최종 3인 선정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김정태 현 회장(사진)을 포함해 3명으로 압축됐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김정태 현 회장과 최범수 전 KCB대표이사 사장,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전날 인터뷰 참여에 응한 7명

의 후보를 상대로 자유 주제 발표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회추위는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들의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기업가 정신, 경력, 전문성, 글로벌 마인드 등 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자들을 평가했다. 후보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적인 비교

우위 평가를 진행해 총 3인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윤종남 회추위원장은 "이번 최종 후보군은 하나금융그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히 자격 있는 후보추천을 위해 다양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확정했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유지해 국내 금융지주사 CEO 선발의 모범사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오는 22일 최종 후보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심층 면담 및 질의응답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15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 및 직원들을 격려하는 '2017 신한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앞줄 가운데)과 수상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2017 신한자원봉사대상

사회적 기업 '여럿이 함께' 매달 방문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2017 신한자원봉사대상'의 시상식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봉사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파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 결과 해외법인을 포함해 총 12개 부서와 3개 커뮤니티가 수상했다.

대상은 사회적 기업 '여럿이 함께'에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해 사랑의 빵, 쿠키 만들기 봉사 활동에 참여한 분당중앙금융센터가 받았다. 분당중앙금융센터는 성남의 대표적인 지역행사로 손꼽히는 '자원봉사박람회'에 행사 도우미로 참가해 지역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실천했다.

위성호 은행장은 "사회가 성숙할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된다"며 "신한의 따뜻함을 전파하는 현장 실천자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우리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 오픈

우리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영업점' 개점식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은 면세구역과 세관구역에 동시 입점해 예금·대출·외환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환전소를 포함해 4곳의 환전소를 운영한다.

영업점은 제2여객터미널 동쪽 지하1층, 환전소는 1층 입국장, 3층 출국장, 세

관구역과 면세구역 총 4곳에 설치한다. 영업점과 환전소는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우리은행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은 아트포트(ART+PORT)를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디자인컨셉에 맞춰 아트피아노, 트릭아트, 폰투스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세련된 이미지의 고객창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상담공간으로



지난 15일 우리은행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

기존의 은행 디자인과 차별화된 아트뱅크(Art Bank)를 구현했다.

/채신화 기자

농협금융인상 대상 하민숙 과장 선정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 NH인재원에서 2017년 최고의 농협금융인에게 주어지는 '농협금융인상(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는 10명이며, 대상 수상자는 NH농협은행 하민숙 과장이 선정됐다.

농협금융인상은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농협금융인상 수상자에게는 특전, 상패 및 상금의 혜택이 함께 수여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1직급 특별 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하 과장은 그동안 리테일메리트 종합

평가 전국 1위, 경영영업본부 MVP 우수 직원, 2016년 카드연도대상 3연패 달성, 매년 금융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금융자격증 4개 보유 등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은 '2017 NH농협금융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동시에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농협금융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봉사단체에도 시상 및 포상을 실시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제주지역 장애인시

총 10명 수상... 특전·상금 등 혜택 대상 수상자 1직급 특별승진 영예

설, 한센병 가정 방문 등 매 주말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협은행 연북로지점 강승표 지점장(현 제주지역본부 부분부장)과 매 주 주말 자발적으로 가족과 함께 장애인들이 돌보고 있는 NH농협은행 WM연급부 김형리 차장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또 하나의 마을 자매결연 및 농촌일손돕기, 지역노인복지센터, 중증정신지체시설 등 방문을 통한 돌봄 활동 및 재정적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농협은행 'NH울산농협 사랑나눔봉사단', NH투자증권 '나이스(Nice) NH, 굿(Good) IC 봉사단' 및 NH저축은행 '행복 드림(Dream) 봉사단' 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출시

KB국민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전용 대출상품인 'KB 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여성기업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기관이 추천한 혁신벤처기업으로 기술등급이 T5(보증서담보는 T6) 이상인 혁신벤처기업이다. 해당 기업에는 연간 3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혁신벤처 유관기관 및 기술보증기금과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혁신벤처기업 지원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 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은 신용등급 및 상품우대금리, 기술등급 우대금리, 일자리창출 우대금리 등 최대 2.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도 및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000억원의 '혁신벤처기업지원 협약보증'에 대해 0.6%의 보증료(연 0.2%씩 3년간)를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혁신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KB국민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혁신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